The Supply and Demand Projection of Physicians in the Medical Service Area

Hyeoun Ae Park, Jeong Soo Choi, See Won Ryu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The study was conducted to project supply and demand of the physicians from year 1991 to year 2010 based on the analysis of supply and demand of the physicians up to year 1989. Results of the study will provide information for the physicians manpower planning of the 7th 5-year Economic Social Development Planning (1992–1996) and contribute to the overall health manpower planning for the 21st century. It is projected that physicians will be oversupplied from the very near future based on the current productivity or underestimated based on the optimal productivity. Thus, it is desirable not to change size of training and education during the 7th 5-year planning period and re-examine the status of the physician manpower at the end of the 7th 5-year period taking into consideration medical services utilization pattern, patients’ satisfaction, and physicians’ productivity.
생활수준의 향상, 인구의 노령화 등으로 보건의료 수요의 급증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급증하는 의료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무엇보다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료인력의 적정공급이다. 의료인력중 가장 주요한 인력인 의사와는 양성기간이 길어 수요가 급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와 반대로 과잉공급일 경우 의사인력의 비효율적인 활용으로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수요청을 통한 국민의료비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미래의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존 의사 인력의 활용방안 뿐 아니라, 종합적인 의사인력 수급계획이 필요하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공급분석 및 추계

의사인력의 공급은 현재의 인력, 장래의 인력증가, 장래의 인력손실 세가지 구성요소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다 (Hall and Mejia, 1978). 현재의 인력은 의료분야에 종사하고 있거나 직장을 구하고 있는 활동공급 (active supply)과 현재 다른 직종에 종사하고 있거나 은퇴한 비활동공급 (inactive supply)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보건의료분야에 취업하고 있는 인력을 활동공급으로 정의하여 공중보건의를 제외한 군의관 등의 군복무자도 비활동공급으로 간주하였다. 장래의 인력 증가로는 국내 외에서 새로운 영향되는 인력과 다른 직종에서 종사하던 인력의 의료직 복귀 및 해외 이주인력의 귀국률, 장래 인력손실로는 은퇴, 사망, 해외이주, 다른직종으로의 전직이 고려되었다. 공급분석에서는 인력의 공급구조를 고려하여 국가시험을 실시한 이래 1989년 말까지의 연도별 인력증가 및 손실의 추이를 분석하여 현재의 인력을 파악하였다.

공급추계에서도 공급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인력공급과정을 고려하여 1989년을 기준년도로 연도별 인력증가 및 손실을 추계하여 목적년도의 인력을 추정하였다. 증가수는 양성기관의 졸업자 중 근무시행 응시자수 혹은 응시율, 합격률 등에 의해 추계되며, 손실수는 특정시기의 연령별 사망률을 이용하여 계산한 사망수 측정과 최근 5년간의 해외 이주율을 이용하여 계산한 해외 유출수에 의하여 추정된다. 현재의 인력수와 장래의 인력증가 및 인력손실을 고려하여 추정된 인력수는 특정시기의 국내 가용인력수가 되며, 국내 취업인력수는 국내 가용인력수에 1989년말 현재의 연령별 취업률을 곱하여 추정한다.